

삶을 설레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 제시

송재영 작가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법' 출간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이자 브런치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재영 작가가 '인생이 설레기 시작했다', '퇴직이 설레기 시작했다', '브런치 작가 도전하기'에 이어 네 번째 책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법'을 출간했다. 123쪽의 비교적 얇은 이 책은 단숨에 읽히면서도 우리에게 크고 깊은 울림을 준다.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끼지 않는가?", "무聊한 일상에서 벗어나 설레는 일을 찾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이 책 속에 그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한다. 각 장에서는 삶을 설레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송재영 작가



1장: 틈을 끼는 것에서 설렘이 시작된다'에서는 설렘은 새로운 시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집지기, 맨스화원 등록, 자가용 버리기, 과감히 떠나기, 글쓰기 등 변화된 삶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2장: 설렘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의 이익만 좇지 말고,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꿈꾸는 삶을 지속하라고 말한다. 3장: 해법은 이미 내 안에 있다'에서, 아내의 행복을 응원하고, 직장인과 함께 성장하며,

직접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삶의 진지한 이야기다. 검찰청 수사관을 퇴직한 후 안정적인 법무사의 길을 걷지 않고, 무작정 떠나고 도전하며 설레는 삶을 선택한 그의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이 책 안에 녹아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특히 저자의 삶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틀을 벗어나 있으며, 다소 무모하고 도발적인 삶이기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돈키호테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설렘을 찾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45평 아파트를 팔아 전원주택을 짓고, 부부가 함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12일 동안 300km나 걷고, 제주의 올레길 26코스 425km를 부부가 함께 걸으며 설렘을 직접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글 속에 녹아 있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한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은, 설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청년 세대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장년 세대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며 "이 책은 재미없는 일상에 갇혀 지내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설레며 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다. 무미건조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고 했다. 그는 "단편적이고 무미건조한 인생에서 작가처럼 설렘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영사 매니저 모집

3월 10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상영작 확인과 영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파트로서 오는 3월 10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기술팀 이메일(tech@jeonjufest.kr)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이날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매년 영화제 전문 인력 양성과 영화산업 발전을 목표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양성을 위한 3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도 별도의 업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관련 경력이나

별도의 경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는 상영작 검색 및 정보 확인, 상영관 사전 영사 및 자막 테스트 진행 등 상영 전 준비 작업과 상영관 및 영사실 관리, 영사 사고 대처와 관객 응대 등 업무를 진행한다. 합격자는 3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채용된 스태프들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주국제영화제 기술팀(063-280-7982)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춘향제 밴드음악 경연 5월 5~6일 개최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 축제인 제95회 춘향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 "춘향의 소리, 세계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취지에 맞게 우리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밴드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열린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전국에 있는 다양한 밴드음악 팀들을 모집, 경연을 통해 락(메탈)·펑크와 같이 강렬하고 경쾌한 음악, 블루스·재즈와 같이 부드러운 음악들을 조화롭게 혼합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공연 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제95회 춘향제 전국 밴드 경연대회 "풍ROCK을 울려라!"는 5월 5일, 6일 2일간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밴드음악 동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nwchbc@gmail.com)로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랑하는 세 아이와 세상 모든 아버지께 바치는 편지'

노회현 가평초 교사, '아버지의기도' 시집 출간

가평초등학교 노회현 교사가 2025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그의 사랑하는 세 아이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의 '아버지의 기도' 시집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기도'는 노작가의 세 번째 시집으로 기도, 부탁, 소중 총 3부 형식, 150여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애뜻한 사랑과 눈물겨운 미안함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교사는 KBS1 <휴먼다큐 사비민곡> '아낌없이 주어야 사는 남자'편을 통해 장편소설 '가던 길이라 마저 갑니다'로 중단 후, EBS 교육방송을 통해 자기 개발서 '천자의 지혜', 경제 시민 단체 활동 후 출간한 시집 '오답노트', 교직에 몸담으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엮은 동시집 '복두칠성',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특허청을 통해 재능기부로 출간한 '발명 속 IT 교과서' 등 발명·특허 전문 서적 20여 종 등을 개발해 전국 발명교육센터 및 영재교육원에 무상

제공하기도 한 문학인이자, 발명가, 사회사업가, 시민운동가, 기업 컨설턴트, 다수의 비영리 연구소 소장, 센터장, 퇴소한 보육시설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장학회 회장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노 작가는 2003년 정치적으로 거세게 불어왔던 농어촌 소규모학교 폐합 열풍에 당시 노작가가 부임하고 있었던 선동초등학교 폐교를 추진하려던 ID 의원과 정면에 맞서 '전교생 1인 1특허 갖기' 특색사업을 펼쳐 전국 공중과 3사(kbs, sts, mbc)를 포함한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에 초청(KBS1 우리는 꿈꾸러기 특별 생방송 촬영)되며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본법 안인 '작고 아름다운 학교 법'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법안으로 인해 남한산성초등학교 등 작지만 특색있고 아름다운 전국 수많은 소규모 학교가 해택을 보기도 하였지만 정작 노작가가 살린 선동초등학교는 그가 학교를 떠난 지 20년이 안 돼 아쉽게도 올해 2025년 인공음초등학교로 통폐합되어 역사적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아버지의 기도'는 노 작가가 청와대에 초청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고, 그분께서 들려주신 충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각종 사회사업, 시민운동, 장학사업에 지속적으로 뛰어들며 행한 무모한 도전들(1985년 영세한 결양식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육가공 지원사업, 2003년 유형업소에 불합한 후원 학



생 18명 구출 사건, 2008년 소외계층 나눔교육을 위한 한국발명사랑연구센터 설립, 2010년 퇴소한 보육시설 아동들의 보금자리 쉼터 건립사업, 2017년 상법개정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소액주주권익보호운동)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했을 그의 사랑하는 세 아이에게 전하는 눈물 자국 가득한 편지들로 커켜이 쌓아 엮은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반성문과도 같다고 전했다. 장학사업으로 퇴소한 보육시설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전소연(전국소액주주연합)이라는 경제시민단체를 이끌면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인 기존의 기업의 내부지정 회계감사에서 외부지정 회계감사로 바꾸도록 상법을 개정하도록 이끌었지만 정작 노작가는 이러한 무모한 도전들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기도'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과정에서 알려진 2114년 한강 작가의 미공개 작품,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며 집필을 결심했다고 하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기도'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등 전국 유명 대형서점을 포함한 600여 개의 일반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돼, 노작가가 가족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내 못다 이룬 꿈의 배편을 이룰 아들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판매 인세 전액은 한국발명사랑장학회를 통해 퇴소한 보육시설 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장학사업에 쓰인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뿔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